

# 삼례문화예술촌 개관 10주년 특별전

한국화 김현정 작가 '계란 한 판, 결혼할 나이' 10일~4월 8일까지 진행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 쉬는 삼례문화예술촌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21세기 풍속화가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화가인 김현정 작가의 특별전을 연다.

김현정 작가는 한복을 입고 일상생활을 하는 여성을 주제로 현대인의 관심을 트렌드하고 개성 있게 표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작가다.

서울대학교 미술학과 학부 졸업,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최연소 작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베를린 주독일한국문화원, 북경 비엔날레, 프랑스 에콜 서울 파리 갤러리, 예술의 전당 등 세계적 무대에서 전시를 개최했다.

김 작가의 작품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삼례문화예술촌의 이미지와 부합해 10주년의 특별함을 더할 전망이다.

오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 제1전시관에서 소개될 특별전은 '계란 한 판, 결혼할 나이'로 꾸며진다.

호남지역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대표작인 결혼시리즈 '결혼:전지



김현정 작가 특별전 '계란 한 판, 결혼할 나이'

차이', '결혼:피로타', '결혼:생각하는 예비신부' 등을 비롯해 내용시리즈 '내송:아차', '내송:나르시스', '내송:나를 움직이는 당신' 등 작품 40여점을 만나 볼 수 있다.

작품 전시와 함께 예술촌은 한복과 연결된 이번 전시회 특징을 담아 △작품 드로잉 △한복 입어보기 △전통 머리 장식·삿갓 만들기 등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전시 기간 중 김현정 작가와의 만

남, 강연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삼례문화예술촌 개관 10주년 특별기획전시 '계란 한 판, 결혼할 나이' 입장료는 무료이며, 해설 및 유료 체험 예약 문의는 삼례문화예술촌(063-290-3862~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외에도 삼례문화예술촌은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대중 특별전시 시리즈, 제2회 지역작가공모전, 완주군민 공예품 전시, 특별 팝업 전시, 주말상설공연, 차 없는 거리 플라마켓, 개관 10주년 특별 콘서트, 공예 및 생활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삼례문화예술촌이 1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그간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지역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공간과 소통을 담은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완주군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 “중·고교 태권도 수업 지원 참여하세요”

태권도진흥재단, 사업 참여 학교 모집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음환, 이하 재단)은 오는 20일까지 '2023년도 중·고교 태권도 수업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의 접수를 받는다.

'중·고교 태권도 수업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은 중·고등학생에게 태권도 수련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해 생활 태권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성과 체력 증진 등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전국 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로, 평가를 거쳐 20여 개교를 선정 후 3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씩 품새와 겨루기 격파 호신술 등의 태권도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단은 이들 학교에 지도사범 파견을 비롯해 도복 교육 기자재 등 수업에 필요한 용품을 모두 지원한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전국 108개 학교에서 2만 5천여 명이 참여하는 등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참여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재참여 의사에 대한 설문에서 5점 만점



에 4.7점을 얻는 등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와 흥미를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는 평을 얻었다.

2022년도 지원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학교와 우수학교로 선정된 경희여자중학교(서울특별시)와 기안중학교(경기도 화성시) 광주동신고등학교(광주광역시), 순천매산여자고등학교(순천시)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 지원 사업에도 자동 선정되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음환 이사장은 "중고교 태권도 수업 지원 사업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국가 태권도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한다"며 "성과 있는 태권도 수업이 되도록 교육당국과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고창군 고인돌박물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선정

2년 연속 인증 통과 '쾌거'

고창군 고인돌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증제는 정부가 공립박물관 운영 내실화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한 평가제도.

정부는 공립박물관 등록 후 3년이 지난 박물관을 대상으로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재정 관리의 적정성, 사료의 수집과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을 평가했다. 전국의 272개 공립박물관 중 139개 박물관만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인돌박물관은 직전 평가(2018년 12월)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인증을 통과하며 세계유산 활용 특화박물관으로서의 입지를 높여가고 있다. 고인돌박물관은 국내 최초 고인돌 전문박물관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창 고인돌유적

의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귀족문화재 보관관리, 기획전시,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박물관을 아껴주시는 군민들에게 감사드리다"면서 "이번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인증기관으로 2회 연속 선정된 것을 계기로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명성에 걸맞게 박물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문화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문화원은 5일 순창문화원에서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한 기관 사회단체장, 역대위원장,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계묘년(癸卯年) 시무식을 갖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 순창문화원, 계묘년 시무식 갖고 힘찬 출발

순창문화원(원장 전인백)은 5일 순창문화원에서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한 기관 사회단체장, 역대위원장,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계묘년(癸卯年) 시무식을 갖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시무식에 앞서 순창문화원의 성숙한 발전을 기원하고 군민 안녕을 기원하며 초헌관에 최영일 순창군수, 아헌관에 신정이 군의회의장, 종헌관에 오은미 도의원이 각각 제관이 되어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원했다.

전인백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3년에는 순창문화원의 근간을 공고히 하는 해로 삼고, 순창 판소리 연구, 여암 신경준 선생의 업적 재조명을 비롯해 순창의 동학농민운동의 재조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군수는 "여암 신경준 선생과 5대 판소리 명창 재조명, 추경장승축제를 전국 규모로 확대해 순창의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원영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공모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오는 25일까지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예술인의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문화 예술창작 활동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분야는 △문화예술창작·육성·심화·창작집·문예지 발간 △문화예술기반구축지원 △청년예술창작지원 등 3개 분야로, 사업비는 총 16억 5천만 원이다.

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

되며, 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신청 자격과 지원내용을 확인 후 해당분야 1개 분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 안내 영상은 추후 재단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사업설명회는 △11일 오후 2시, 남원 지리산 소극장 △12일 오후 2시, 군산 예술의전당 소공연장 △13일 오후 2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 대회의장에서 각각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